

## 친환경 사업을 통한 공공방역체제 구축에 역점



지난 8월 16일 전남도지회 무안지부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좌부터 김영대 무안농축산과장, 김복남 나주시지부장, 권동혁 무안지부장, 이영재 한국양계농협조합장, 김상현 고문(전 광주전남양계축협조합장), 김종선 광주전남도지회장, 이호남 고문(목포계우회장)

**마**이산과 백련축제 등으로 유명한 전남 무안지역의 양계인들이 지난 8월 16일 무안군 청계면 소재 지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거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종선 광주전남지회장, 이영재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김영대 무안농축산과장을 비롯한 관련인사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광주전남도지회 산하 무안지부의 회원들은 총 양계농가(63개)중 46개 농장이 가입되어 있으며 산란계 21개 농장에서 52만수, 육계(삼계포함) 25개 농가에서 140만수정도가 사육되어지고 있다.

무안지부는 지난 2002년 3월 1개읍(무안)과 4개면(운남, 현경, 망운, 청계)에서 32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갖고 서남계우회

로 출발 한 바 있다.

당시에는 2004년까지 무안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양계인들이 비행기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막고 업을 사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다행히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05년까지 계획이 연기되면서 한 시름 놓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비책(보상, 이주계획 등) 마련에는 소홀함이 없다.

이후 2002년에는 무안계우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난해에는 양계산업의 제반 여건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부응하여 양계협회 조직이 지회, 지부로 승격됨에 따라 지부설립 요청을 하게 되었고 결국 금년 6월 4일자로 지부설립 인가를 득하여 7월 16일 46개 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무안지부 권동혁 지부장은 회원들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와 육계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등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최근의 상황에서 타 단체들(양돈협회 등)과 연계하여 닭질병 공동 방역체제를 갖추는데 역점을 둘 계획을 밝혔으며, 친환경 축산환경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무안지부 회원들에게

#### ▶ 임원명단

지 부 장 : 권동혁  
부지부장 : 권윤혁, 박용진  
총무이사 : 박평기  
이 사 : 나상화, 박상만, 윤정애, 윤정학, 전종현  
감 사 : 양동옥, 김홍도  
고 문 : 김상현, 이호남



회원들의 단합과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권동혁 지부장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계분처리와 관련하여 공동 퇴비화 사업장 운영계획을 통해 현안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임을 밝혔다.

권 지부장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양계 관련 업계의 성원에 힘입어 마련한 지부사무실을 전 회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친목도모, 정보교환의 장이 되어 회원들의 권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무안지역은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위치해 있어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기에 타지역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군, 축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지부를 운영해 갈 계획을 밝혔다.

광주전남지회는 현재 무안지부의 탄생으로 나누시지부(지부장 김복남)와 함께 2개 지부로 늘어났다.(정리 | 김동진 차장 dj@poultry.or.kr) **양계**